



# 한국의 보물, 해인<5>

## 해인의 모양, 해인의 사용법, 해인으로 이룬 일

해인설화의 번호	해인의 모양	해인의 사용법	해인으로 이룬 일
가①	빨간 주머니에 패철을 붙인 것으로 도장같이 생겼다.	종이에 글을 써놓고 해인을 찍는다.	금고에 넣어 보관만 했다.
가②	붉은 것	보자기에 싸서 가슴에 올려놓았다.	죽었던 이웃집의 9대 독자를 되살렸다.
가③	도장(용왕국 정치 하는 해인 3개 가운데 중간크기를 가져왔음)	종이에 글자를 쓰고 해인을 찍었다.	자신의 3대 독자를 살렸다.
가④	동그스름한 쇠	말을 한다.	쌀과 돈이 나오게 했다.
가⑤	설명이 없다.	정성을 드려 원한다.	양식과 돈을 나오게 했다.
가⑥	오각짜리처럼 생긴 돈	물건에 비춘다.	돈을 나오게 했다.
가⑦	도장	인주를 묻혀 글자 위에 찍는다.	돈을 나오게 했다.
가⑧	빨간 것	말하는 대로 나온다.	돈과 옷, 쌀을 나오게 했다.
가⑨	하얀 병	말로 요구하는 대로 물건이 나왔다.	옷, 술, 밥을 나오게 했다.
가⑩	3개의 주머니 가운데 바깥쪽에 있던 주머니(훗날에 살펴보니 도장이 들어있음)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다.	
가⑪	설명이 없다.	부르는 대로 나온다.	물건을 나오게 했다.
가⑫	용왕부인의 웃고름에 차는 장식	뜻대로 된다.	사용하지 못했다.
가⑬	식기(食器)처럼 동그스름하게 생겼다.	사용법을 몰라 보관만 하고 있었다.	
나①	붉은 연적 (작은 것)	글자를 써서 둔다.	술과 밥, 군사를 나오게 했다.
나②	용약	먹을 갈아 종일 사용해도 마르지 않았다.	
나③	벼루	설명이 없다.	



용왕도

해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신비한 물건으로 인식되어 설명이 없거나 '도장 인(印)'에 근거하여 사람이 사용하는 도장처럼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둥근 쇠 모양, 돈처럼 생긴 것, 하얀 병, 웃고름의 장식, 그릇처럼 생긴 둥근 것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해인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지 않은 이야기들에서는 연적, 용약, 벼루 등으로 이야기된다. 간혹 빨간 주머니에 풍수를 보는 물건인 패철을 붙인 것으로 도장처럼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다. 빨간다는 것은 도장을 찍을 때 사용하는 인주에서 연상된 것으로 보이며, 패철이라는 풍수를 보는 신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과 연관되었다고 전승되는 것이다. '빨간 것'으로 해인을 표현하는 설화도 몇 편이 전하는데, 역시 도장과 관련된 인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돈과 같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물건을 비추면 돈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이야기다. 환에서 돈이 무한히 나온다는 유형의 이야기다. 확대재생산에 대한 이미지가 반영된 설화로 보인다.

또 예외적으로 해인이 하얀 색깔의 병 모양이라는 전승도 있는데,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물건을 생산하는 일에 사용되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용왕이 자신의 부인이 입는 옷을 장식하는 물건이 바로 해인이었다고 전승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용왕이라는 신성한 가족이 사용하는 의복과 관련된 물건이 신비한 능력을 지닌 해인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마음을 먹은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진 이 물건은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했으며, 동그렇게 생긴 그릇과 같이 생겼다는 해인도 그 사용법을 몰라서 단순히 보관만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따라서 해인의 구체적인 모양에 대해서는 정확한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만큼 신비의 영역에 있다는 이야기의 결말을 유도한다.

그리고 해인을 전해준 용왕이 인간계의 인물에게 해인의 사용법에 대해 그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고, 오랜 세월 동안 해인의 사용법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를 계기로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이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성(聖)의 영역과 경계에 있는 보물이 속(俗)의 영역과 경계로 갑자기 넘어 오더라도 제대로 된 생김새와 사용법은 항상 신비한 채로 남아있다는 것이 해인이야기의 중심 테마인 것이다.

그렇다면 해인은 어떻게 사용했을까? 도장이므로 종이에 글자를 쓰고 그 위에 해인에다 인주를 묻혀 찍어서 사용했다고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해인에 대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인을 보자기에 싸서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거나 원하는 물건에 해인을 비추면 그 물건이 나왔다고도 한다. 드물게는 해인의 사용법을 몰라서 단순히 보관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다. 결론적으로 신비한 보물인 해인을 사용해서 과연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일반적으로는 돈, 쌀, 옷, 술 등 해인을 가진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간곡히 원하는 물건을 나오게 했는데, 간혹 죽었거나 죽어가는 인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했다고도 전한다. 재물과 목숨이라는 인간이 가장 필요한 일에 해인이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부(富)'는 땅지의 세계나 다른 세계와의 사이에 통로를 열 수 있는 사람만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설화가 많다. 초자연이 가져다주는 부는 절약해서 순환시켜나가는 경제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어지는 증여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것은 제한이 없으며 화려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증여는 절약하거나 아껴우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해인이라는 보물은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그리고 조건없이 준다. 이처럼 사회적인 교환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틀을 벗어나 있는 것에 대한 욕망이 해인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해인이야기는 초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인간이 소망하는 재물이나 부의 획득이 강조된 것이다.

유한한 삶을 누리는 이 세상은 결핍된 세계이며, 해인이 원래 있었던 용공은 영원한 생명과 풍요가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요의 세계이다. 보은(報恩)의 대가로 용공에 있던 해인을 지상에 가져온 노인은 해인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거나 자식의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된다. 여기서 물건은 인간의 욕망을 대표하고, 생명은 인간의 본질을 상징한다.\*

김탁 박사 / 신종교연구가

# 단군민족의 뿌리 역사Ⅳ

## 단군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임을 밝힌다

(지난호에 이어서)

그래서 성경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긴자 구세주 출현을 예언하고 있으며 성경과 짝하는 격암유록에는 심승진인(十勝眞人) 구세주 정도령의 출현을 똑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과 마귀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구세주, 이긴자, 정도령이 출현하여 영적 깨달음을 줄 때 비로소 이 세상에 참 종교와 학문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민족이 수천 년 전부터 가르쳐 왔던 인내천 사상이 삼천오백여 년 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이 일찍이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인내천 사상과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하늘나라 문명을 펼칠 수 있었고 일찍이 동방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 한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인 이유 ②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풍속이 한민족의 동짓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절기 행사는 그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출애굽 한 날을 기리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저녁에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대문간 양쪽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자게 하였습니다. 이튿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 집에는 바로 왕과 모든 집안의 장자로부터 먼저 난 짐승들까지 다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에서 일어난 주검의 대참사를 본 '바로' 왕은

겁을 먹고 애곡(哀哭)하며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에 굴복하여 모세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가족들을 인솔하여 애굽 땅을 떠나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 이하에 유월절의 정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지시한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며, 한민족 역시 유월절 행사로 동짓날 팔죽을 끓여 먹고 문설주에 팔죽 국물을 발라 액운을 쫓아내는 풍속을 지켜 왔습니다. 이사할 때도 팔죽을 끓여 먹거나 팔을 바른 시루떡을 만들어서 이웃과 나눠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동짓날 행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변형된 행사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지가 되는 양력 12월 22일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며 이후부터 점차 낮이 길어지니 성경의 유월절의 내용처럼 달의 첫날이요 해의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기념하던 행사가 훗날,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이 소라 땅을 떠나 삼위 태백의 한반도 일대로 이동한 후로는 양이 귀하므로 동짓날 양의 피와 비슷한 팔죽을 쑤어 떡 알맹이는 먹고 팔죽 국물을 대문간 양쪽 문설주와 인방(楅)에 발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풍속을 625 전후 세대들은 1900년대까지도 시골

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동지와 같이 유월절에서 파생된 풍속으로 결혼하는 신부의 얼굴에 붉은색 연적 끈지를 바르는 것이나 처녀가 머리를 빗아 붉은색 땀기를 묶고 다니는 것 마를 귀 서낭당 나무에 붉은 베를 매달거나 출산한 집 때문에 숯과 붉은 고추를 매달아 줄을 치는 것 등은 마을과 집안에 액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유월절의 변형된 풍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Ⅳ

#### 한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인 이유 ③

'단군'의 어원은 이스라엘 단지파의 시조 단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 야곱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듯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의 하나인 단지파는 그들이 가나안 북부 소라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 그 위의 레센 지방을 점령하였을 때 그 지역을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단이라 불렀다는 내용을 여호수아 19장 47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관습을 가진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예들이 동방으로 와서 고조선 건국을 하고 초대 임금인 된 '왕검'을 단군왕검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1부에서 환인의 서자 환웅이 곧 이스라엘 단지파의 시조 단이라는 것을 밝혔듯이 단군 민족은 조상 단의 이름을 높이고, 오래도록 기리기 위하여 고조선을 건국한 왕검의 이름 앞에 시조 단의 이름 자에 임금 군(君)자를 더하여 단군왕검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단군은 왕검의 성도 이름도 아닌 조상 단의 존칭어이자 왕의 연호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군왕검 이후 고조선의 역대 왕들도 그의 이름 앞에 단군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단지파 민족의 전통 풍속이 조상 시조의 이름을 따서 지명과 나라 이름 왕의 연호로 사용했던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한 민족을 단군 민족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하나님의 다섯째 아들 단의 출생 배경을 성경 창세기 30장 3절 이하에서 살펴보면, 비록 단이 서자로 태어났지만, 본처의 장자로 임명되어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 하나님이 늙어서 열두 아들들에게 장래 일을 축복하고 예언할 때도 단에게만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하여, 영육 간에 하나님의 직계 혈통을 계승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야곱 하나님이 그의 부친 이사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과 하나님의 신을 축복받은 때와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이 한 번의 축복으로 아들에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예인 단군 민족이 하나님의 천손 직계 장자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풍속들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 풍속과 똑같은 것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정에서 생겨난 풍속임을 보여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단군 민족의 시조를 성경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오는 욥단이 단군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경 역사와 단군 민족의 전통문화 풍속을 비교해 볼 때

욕단은 결코 단군 민족의 시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욕단'에 대하여 하나님의 장자권이나 어떠한 축복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욕단' 축속이 실사 동방 땅에 먼저 이주하여 '호족'이나 '웅족'으로 토착한 선주민이라 한다면 삼국유사의 기록처럼 그들이 고도로 법제화된 이스라엘의 신앙 법도와 발달한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온 서자 환웅의 무리, 곧 이스라엘 단지파에 의해, 교화된 민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아의 5대손 '욕단'이 단군 민족의 시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첫째, 욥단은 노아의 5대손이자 아브라함의 5대 조부인 벨렉의 친동생으로서 하나님의 서자이면서 직계 장손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축복받은 바가 없습니다.

둘째, 단군(檀君)의 명칭은 이스라엘 단지파의 시조 단의 이름 자에 존칭어로 임금 군(君)자를 더하여 조상을 높여 부르기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한, 왕의 연호로 사용하여 고조선을 건국한 왕검과 역대 임금의 이름 앞에 붙여 불렀던 것입니다. 곧 단군은 고조선을 건국한 왕검의 성과 이름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욥단을 조상으로 받든다면 '욕단군'이라 불려야 하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욥단은 바벨탑 사건 당시 동방으로 갔다 하나 그들이 셈족의 후손으로서 중국이나 동양인의 선주민이 되었다면 서자 환웅과 단군 민족에 의해 교화되어 정복된 민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한민족이 동짓날 팔죽을 쑤어 문설주에 바르는 풍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풍속에서 유래

된 것이므로 모세의 출애굽 이전의 욥단 시대에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풍속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마나산 잠성단이나 높은 산에 올라 제사 지내는 풍속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욥단 시대에 바벨탑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여섯째, 한민족 고유의 결혼풍속인 형사취수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단의 이복형이 되는 유대의 세 아들이 결혼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한민족의 선산에 장례하는 풍속이나 삼베옷 입고 죽은 자에게 애곡하는 풍속과 돌 상석 위에 제물을 놓고 제사하는 풍속 등은 역시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덟째, 삼신 숭배 사상이나 신주단지를 모시는 풍속들은 모세의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서부터,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을 기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나를 보관하던 관습에서 비롯된 풍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지금 국립 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히브리 문양이 새겨진 외양의 유물은 모세시대 사용하던 히브리 문자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욥단이 단군이 아니라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한민족의 고대 언어 문자와 나라꽃 무궁화의 유래 또 앞으로 밝혀질 될 두 민족의 전통문화 풍속을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단지파 민족이 천년의 세월을 두고 이동해 온 단군 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